

# 가을의 정취 가득한 '임진강변 생태탐방로'



1 생태탐방로를 걷는 시민들 2 생태탐방로 노선도

경기도 파주시는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, 통일의 길목으로 꼽히기도 한다. 그런 만큼 다양한 안보 관광지와 여행지가 곳곳에 숨어있다.

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통일대교, 초평도, 임진나루를 지나 울곡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9.1km의 구간으로 약 3시간이 소요되는 코스다.

1971년 미군 제2사단이 서부전선을 한국군에 맡기면서 철책이 설치되고 민간인을 통제하던 지역에 군 순찰로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다.

이곳은 2016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됐다. 단, 출입 절차와 시간, 인원의 제한이 있고,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어서 탐방객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이 될 것이다.

임진각~통일대교~초평도~임진나루~울곡습지공원을 잇는 탐방로 코스에는 다양한 자연생태가 잘 보존돼 있다. 탐방로 곳곳에서 고라니가 뛰노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.

재두루미, 독수리, 쇠기러기 등 겨울 철새가 월동하는 초평도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으며, 봄에는 유채, 가을에는 코스모스 정취를 맘껏 느낄 수 있는 울곡습지공원과 울곡수목원이 있다.

탐방로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(월·화·법정공휴일 휴무)까지 운영되며, 위탁 운영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해설사를 배치해 탐방 코스를 안내한다.

생태탐방로 걷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참가일 7일 전까지 생태탐방로 홈페이지(<http://pajuecoroad.com/>)로 신청하면 된다.

토요일과 일요일은 사전예약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임진각 관광지 생태탐방로 안내소를 방문하면 누구나 현장 접수를 통해 탐방할 수 있다.

하루 이용 인원은 10명 이상 150명 이내로 제한된다. 탐방은 만 12세 이상이며, 만 12세 미만은 보호자가 함께 참가하면 된다. 자세한 사항은 임진강 생태탐방로 안내소(☎ 070-4238-0114)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. ①



2

#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

## 45년만에 개방, 평화의 숨결이 숨쉬는 길

